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질서를 잘 지키고 좀 더 이웃을 살피면 사회가 밝아질 것입니다’

김동건 회장 인사말 통해 좋은 방송을 위한 방송인의 자세 강조

2014년 2분기 정례모임 5. 29 여의도 열빈, 원로 회원 등 23명 참석



▶ 김동건 회장

김준우 협회장 등 현역 6명, 방우회 이장준 이사 등 23명이 참석했다.

김동건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월호의 영향으로

사회가 침체되어 있다. 사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애국이 따로 있겠는가? 질서를 잘 지키고 기다릴 줄 알며 좀 더 이웃을 살피면 사회가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최만린(전 KBS) 고문

은 간담회에서 “좋은 방송을 위해 마음을 다잡자.”라며 중점을 강조했다. 황우겸(전 KBS) 고문은 지난 1960년 4월 26일,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과정에서 자신을 비롯한 아나운서

(사)한국아나운서클럽 2분기 정례 모임이 5월 29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 열빈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김동건(전 KBS) 회장을 비롯한 16명의 회원과 OBS

28명이 ‘방송중립화선언’을 했던 당시 상황을 전하며 “공정 방송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나 공영방송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했다.

참석자들에게 선물한 이정부·서금량(전 KBS) 부부의 책 <방송 안녕하십니까>와 <서금량의 매니큐어그림 이야기> 전달로 시작되어 정홍숙(전 MBC) 회원의 ‘오월의 시이해인’, 이후재(전 KBS) 회원의 자작시 ‘뉴욕 고양’이 낭송, 채영신(전 KBS) 회원이 아들 혼사에 참석해준 회원들에 대한 답례로 도나우디의 가곡 ‘스피라테

푸르(산들바람아 불어라)를 선사했던 2분기 정례 모임은 제주로 이주한 정경래(전 KBS) 회원을 대신해 새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황량(전 KBS) 회원 등의 소감을 들으며 밤늦도록 여유롭게 진행되었다.



▶ 세월호의 여파로 빈 자리는 많았지만, 빼놓지 않고 참석하는 황우겸 고문부터 첫 선을 보인 OBS 조은유 아나운서까지 참석자들은 밤 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며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최만린 고문 간담회 ‘중심을 잃지 말고 좋은 방송을 합시다’

황우겸 고문, 4·19 때 ‘방송중립화선언’ 당시 상황 전하며 ‘공정방송 노력은 계속돼야 하나 공영방송 중단돼선 안 돼’

다음 모임은 8월 26일(화) 6시 30분 여의도 열빈서 개최

KBS 아나운서실, 세종문화상 한국문화 부문상 수상

한국어 연구와 보급, 올바른 언어문화 확산으로 소통문화 구현한 공로

KBS 아나운서실이 세종문화상을 수상했다.

KBS 아나운서실은 5월 14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제33회 세종문화상 시상식에서 한국문화 부문상을 수상해 부상으로 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 KBS 아나운서들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을 하나로 묶는 소통문화를 구현하고 KBS한국어연구회 활동, <바른 말 고운 말>, <우리말 겨루기> 방송, 한국어 능력 시험 기획·주관, 우리말 상담 전화와 KBS 한국어 발음 사이트 운영, 어린이 발음왕 선발대회,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교실 등으로 세대 간의 화합을 추구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KBS한국어연구회는 이미 1990년 10월 10일 제9회 세종문화상 문화부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문체부 유진통 장관과 KBS 김동수 실장

1982년 제정한 세종문화상 올해의 수상자는 문화 부문 KBS 아나운서실을 비롯해 예술 부문 재즈 가수 나윤선, 학술 부문 이익섭 서울대 명예교수, 국제협력·봉사 부문 취한 한중문화우호협회장, 문화다양성 부문은 EBS <스페이스 공감>이 선정되었다.

방우회 정동 1번지 첫 방송터서 한국 방송의 발전을 기원

유허비 세운 서울덕수초 운동장서 4월 26일 기념식 거행

(사)한국방송인동우회(이하 방우회)가 주최하는 2014년도 첫 방송터 기념식이 4월 26일 첫 방송터 유허비가 있는 서울 정동 1번지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한영섭 방우회 회장을 비롯해 서중환 문공회 회장, 수필가 이경희 여사, 한국아나운서클럽 황우겸, 강영숙, 전영우, 박종세 고문과 김규홍 부회장이 참석했다.

엄복영, 송현식 회원 등 40여 명이 함께한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은 한국방송 87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 방송의 발전을 기원했다.

방우회는 1987년 방송 개시 60주년을 맞아 아나운서 출신 조각가 최만린 당시 서울미대 교수에게 의뢰해 첫 방송 터에 유허비를 세우고 해마다 기념식을 열고 있다.



▶ 한영섭 회장을 비롯해 아나운서클럽 황우겸, 강영숙, 전영우, 박종세 고문, 전 KBS 이사 박경환, 전 KBS PD 김명희, 성우 오승용, 수필가 이경희 등이 참석했다

장기범 선생 작고 26주기 맞아 김포 월곶 묘역 참배

비공식 추모 첫 번째 모임 후배 10명 참여 고인 기려

고故 장기범 선생 26주기 추모 모임이 5월 5일 11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묘소에서 열렸다. 작년 25주기로 끝을 맺은 공식 추모식에 이어, 배덕환, 이규향, 이팔용, 정희준, 김승한, 이세진, 김규홍, 이계진, 김선동 회원과 전 방송기술인연합회장 안덕상 시인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으로 치러진 첫 번째 추모의 자리였다.

이세진 회원은 “늘 그러했듯이 신록이

눈부신 화창한 날씨에 문수산성 아래 묘소며 묘비석도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노년으로 접어든 후배들의 머리만 희끗해보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이날 추모 모임은 부산방송국 기술직 초임 시절 장기범 국장으로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윤우근 선생이 지금은 진주에서 양계업에 성공한 사업가로서 추모 화환과 함께 두둑한 성금을 보내와 뜻 깊었다고 한다.

아나운서연합회 ‘안녕 우리말 콘서트’ 가을로 연기

9월 3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용극장에서 개최 예정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주최하는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안녕! 우리말 콘서트>가 가을로 연기되었다. 신동진(MBC) 연합회장은 세월호 추모에 동참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5월에 개최할 예정이던

안녕! 우리말 콘서트’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녕! 우리말 콘서트’는 오는 9월 3일(수) 오후 6시 30분 서울 용산구 이촌동 국립중앙박물관 용극장에서 인기 가수 개그맨의 공연과 우리말 퀴즈 등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 6·4 지방선거 개표방송 |

KBS 국민 알 권리 위해 최소 인력으로 스튜디오 중심 개표방송 진행
MBC 마술처럼 흥미롭게 구성 아나운서 참여로 방송 신뢰도 높이고
SBS 소통을 주제로 SNS-LTE 중계 ‘선거수다’ 등으로 차별화 시도



6월 4일 제6회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파업 중인 KBS 노조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거방송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기로 함에 따라 KBS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흥기섭 앵커와 김윤지 아나운서를 비롯해 김재홍, 도경완, 윤지영, 이광용 아나운서 등이 스튜디오 중심의 개표방송에 참여했다.

MBC(사)는 배직을 키워드로 오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최첨단 기술과 마술쇼 등 화려한 볼거리를 구성한 선거방송을 선보였다. 박상권 앵커와 이정민 아나운서가 전체 진행을 맡았고 강다솜, 김초롱, 양승은, 오승훈, 이상배, 차미연, 최대현 아나운서 등이 대거 참여해 선거방송의 신뢰도를 높였다.

2012년에 이어 ‘소통’을 주제로 선거방송을 진행한 SBS는 오전 9시 1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SNS-LTE를 통한 투표 현장 중계, ‘선거수다’ 등 이색 코너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성준 앵커와 박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을 바탕으로, 김소원, 김지연, 배성재, 최혜림 아나운서 등이 참여했다.

Zoom-in KBS 아나운서 출신 부부 동시 서적 출간

〈이정부-방송안녕하십니까〉 〈서금랑의 매니큐어그림 이야기〉

매니큐어 그림을 아십니까? 내겐 핑킹작업이에요

홍익대 미대를 졸업하고 1968년 입사, 재기와 해학으로 늘 주위를 탄복하게 만드는 이정부 아나운서와 서라벌예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입사한 1년 후배, 직접 옷도 만들어 입는 알뜰한 멋쟁이 서금랑 아나운서는 1969년 대구KBS에서 만나 1971년 혼인했다. 그러나 이 재능 많은 행복한 부부에게 시련이 닥쳤다. 외아들이 19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건강이 나빠져 실명 상태에 이른 부인을 대신해 남편이 살림을 맡아야 했는데... 최근 부부가 동시에 책을 펴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서울 은평구 수색의 자택을 찾았다. SBS TV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에서 막 취재를 하고 간 직후였다. 두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것일까? 글/ 황인우 편집장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세요

서 : 매니큐어로 그림을 그려 새로운 걸 창조한다는 기쁨에 건강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면 눈이 떠지고 정신적으로도 평화롭고 즐거워졌어요.

이 : 집사람이 '눈꺼풀 연속'이라는 까다로운 질환으로 눈이 잘 감겨 고통을 겪는데, 매니큐어 그림이 치료보조적인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그림 그리는 걸 보니 나도 신이 납니다.

저도 매니큐어로 덧칠 정도는 해보았지만, 그림까지 그리신다니 놀랍습니다. 매니큐어 그림은 세계 최초 아닌가요?

서 : 오래 전에 쓰다 만 매니큐어가 굳어가는 게 아까워 낡은 화분에 칠하기 시작했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짜리 매니큐어를 잔뜩 사다가 밤을 새워가며 온 집안 에다 눈에 띄는 대로 불갈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칠하고, 찍고, 굽고, 말리고 다시



▶ 신혼 초 쓰던 플라스틱 아이스박스에 새 옷을 입혔더니, 당장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더라는 서금랑 회원



▶ 부인이 칠한 이젤 앞에서 작업 중인 이정부 회원. 이젤이 빛나니 상대적으로 그림이 죽는 건 아닌지...

매니큐어 그림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방송 안녕하십니까〉는 아내 책 준비하다가 무임승차 출판

두 분이 이미 2011년에 '수필춘추'로 등단하셨고 블로그도 있었으니 준비가 다 돼 있었던 셈이네요. 〈방송 안녕하십니까〉란 제목의 의미는요?

이 : '방송은 잘 있는지?' 가 늘 내 관심사입니다. "방송 안녕하십니까?"처럼 자고 일어나면 중편 생기고 새 프로그램 생기고 하잖아요? 방송이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방송인이 제 역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5편의 시적 수필, 29편의 수필과 칼럼을 엮었습니다.

금랑 선배님은 벌써 세 번째 책이시네요

서 : 1996년에 고통을 이기기 위한 하소연으로 〈천사들과 가는 세상(제일)〉을 냈고, 2011년에는 지식 같은 반려견 컬링을 키우며 〈개도 인간이다(향지)〉를 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생채기를 드러내며 치유하고자 하는 과정이었다면 두 번째는 개 키우는 사람들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나누려 했지요. 세 번째 책



▶ 고흐의 그림 같은 화실 풍경



▶ 칠이 벗겨진 수도꼭지도 새 생명



▶ 잉카의 태양을 담은 옹기 항아리



▶ 기침 나오라고 따뜻한 색칠한 서류함



▶ 대형 캔버스로 바뀐 거실 에어컨

그리고, 매니큐어는 원체 양이 적고 붓도 작을 뿐 아니라 빨리 굳어버리잖아요? 접근하기는 쉽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지 않고는 불가능하기에 생각처럼 만만치는 않답니다.

이 : 세상 어느 누구도 시도할 수 없었던 최초의 작업이지요. 식탁, 전자레인지, 에어컨 같은 대형 일용품에 매니큐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거예요. 두 달 정도 되는 사이에 200점이 넘는 오래된 생활용품들을 환골탈태시켜 놓았지 뭐니까?

풀밭 같은 에어컨도 근사하고, 기타는 꼭 고흐의 기타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책을 내게 되셨어요?

서 : 하다 보니 놀라워, 주부들에게 제작 체험을 통한 취미생활과 폐품활용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싶어 책을 만들게 되었어요. 황홀한 색채를 창조해내는 즐거움과 함께 낡은 생활용품에 생명을 불어넣고, 튼튼하고 감촉 좋은 물건으로 탈바꿈시키는 실용적 효과를 알릴 겸 원래는 전시회를 할까 했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화분의 꽃도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쓰는

거라 살림살이를 다 들고 나갈 수 없으니 사진을 찍어서 화집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 : 아내의 색채 구사가 '천재다!' 싶더라고요. 작품이 워낙 좋아 내가 부추겼지요. 그 출판 과정에서 내 블로그 〈말이 삶을 바꾼다〉

(<http://blog.naver.com/iiiiiiiiip>)를 본 담당자가 내 책도 만들자며 글을 뽑아 바로 교정을 해왔더라고요. 아내 작품집을 준비하다가 '히치하이킹' 같이 내 수필집도 내게 된 거예요.

굳어가는 매니큐어가 아까워 취미생활로 폐품 재활용 빨리 굳어버려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지 않으면 불가능해 두 달 만에 화분, 식탁, 에어컨 등 200여 점의 생활용품 환골탈태시켜

〈서금랑 매니큐어그림 이야기(지식과감정)〉를 낸 동기는, 힘들고 화나고 어려운 게 인생 아닐까요? 지난날의 고통과 고난이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추억거리, 재산임을 그림으로, 글로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매니큐어 그림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구요.

그림 위주지만 길피갈피 글도 여사름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직업이 또 기대가 돼요 앞으로 바램은요?

서 : 친구가 나 보고 "넌 너무 순수해서 탈이야. 바르말해서 탈이야."라고 하더라고요. 최대의 칭찬이지요. 건강하게 순수성 잃지 않고 살았으면 해요. 계속글 쓰고 공부하며 평생 펜을 들고 싶어요. 이 : 난 얼마 전까지 골프 중계를 했지만 현재는 주부主婦 아닌 주부主夫 라 할수 있지요. 내가 하지 않으면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남성도 주부 노릇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등급이라는 글에도 썼듯이, "우리는 분리수거일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 했을 것이다."라고 집사람과 얘기하곤 하지요. 상대적 빈곤을 느끼며 스스로 불행에 빠지기보다 세상을 비아냥거리며 살고 싶어요.



▶ 무슨 일이트 일방적인 결정은 없다. 상대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지내는 이정부, 서금랑 부부.



▶ 강아지 컬링을 입양하고 찍은 2010년 가족사진. 이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다.



▶ 1969년 대구KBS '아나운서 온 퍼레이드'에서 노래하는 이정부(중앙) 선배에게 매료된 서금랑(맨 끝) 아나운서.

방송가 소식

지역 청소년 위해 재능기부, 그 흐뭇한 순간들

대전충남아나운서협회 4대 회장 이명숙(tjb 문화콘텐츠팀 차장)



▶ 작년 12월 19일 교육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는 자리에서 왼쪽부터 필자 이명숙, CBS 이태현, 김신호 교육감, MBC 임세혁 아나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재능기부라는 말이 불이 번지듯 유행했다. 그러나 다 그렇듯 처음에는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슬그머니 시들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가 삶의 이치처럼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속하고 발전시켜가기가 어렵다는 뜻이라.

대전충남아나운서협회가 지역 청소년의 바른말 사용과 미래 설계를 돕고자 지난 2012년 2월 13일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작년 연말까지

2년간 격월로 개최한 초중고 대상 아나운서 아카데미는 '재능기부의 지속적이며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자부한다.

대전충남아나운서협회와 학생들과의 즐거운 만남은 협회가 창립된 2006년, 여름방학을 맞아 실시한 고교생 대상 방송 아나운서 무료 체험 캠프에서 비롯되었다. 그 토대 위에서 김신호 교육감의 '해피 스쿨, 대전교육사랑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진 아나운서 아카데미는 우리 협회의 위상을 높여준은 물론 전국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한 방송아카데미를 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협회 창립부터 재능기부 여름방학 아나운서 무료 체험 캠프 운영

초중고 대상 아나운서아카데미 개최, 신청 쇄도

학생들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회원사 간사들이 소속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한 명을 강사로 배정해 자율적으로 진행하거나 신청 학교로 방문 교육을 실시했는데, 매년 신청자가 넘쳐 담당 간사들이 인원을 정해야 하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대부분 아나운서를 꿈꾸고 신청했지만, 개중에는 말하기를 잘하고 싶고 '소통'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 찾았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진부하거나 상투적이지 않은 수강생들의 태도는 회원들에게 즐거운 부담을 안겨주었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 열심히 배우려는 빛나는 눈빛, 잘 깔거리며 적당한 때 터져주는 웃음, 그야말로 방송아카데미 교실은 늘 뜨겁고 따뜻했다. 학생들의 열망과 방송반 교사, 학부모들의 열성에 우리 회원들은 더 진지하게 고민하며 강의에 최선을 다했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간 재능기부라는 무대에 즐겁게, 기꺼이 함께해준 우리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그리고 작년 연말 내 뒤를 이어 대전충남아나운서협회를 이끌게 된 김연선(KBS대전) 회장에게 성원을 보내며 방송아카데미에 참여했던 지역 청소년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한다.

편집자 주: 2006년 1월 23일 창립한 대전충남아나운서협회는 현재 대전KBS, 대전MBC, TJB, 대전CBS, TBN대전교통방송 소속 전·현직 아나운서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MBC 김학선, KBS대전 배우신, 대전CBS 이태현, TJB 이명숙 아나운서에 이어 2013년 12월 12일 KBS대전 김연선 아나운서가 4대 회장에 취임했다.



유애리 아나운서 제주총국장 임명 여성 아나운서 최초로 방송국장 발령



유애리 아나운서가 여성 아나운서로는 최초로 6월 2일 KBS제주방송총국장에 임명되었다. 유 총국장은 1981년 8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월드뉴스>, <라디오 24시 유애리입니다> 등을 진행했고 2009년 제36회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어연구부 부장과 KBS 노조 여성협회 회장을 지냈다.

41기 공채 통해 신입 아나운서 10명(남4, 녀6) 입사



▶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유진, 강서은, 진유현, 봉효정, 고새롬, 백선일, 이지현, 최현호, 김선근, 김형철

41기 아나운서가 입사했다. 전국권 2명(강서은, 김선근), 지역권 8명(충청권: 백선일, 영남권: 신유진, 이지현, 진유현, 최현호, 호남권: 김형철, 봉효정, 제주권: 고새롬) 등 10명(남4, 녀6)의 신입 아나운서는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아나운서실 교육 후 5월 19일 지역으로 배치되었다.

이와 함께 5명의 39기 강승화, 김지원, 이각경, 이승현, 조항리 아나운서가 각각 대구, 창원, 제주, 청주, 부산에서 1년 반 동안 지역 순환근무를 마친 뒤 5월 19일부터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다.

성기영 부장 미국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특강 성세정 변우영, 언어정책 연구 위해 NHK 출장

성기영 한국어연구부장이 국제협력실에서 실시하는 파견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왔다. 성 부장은 실리콘밸리 한국학교(교장 윤계인) 초청을 받아 5월 22일 한인회관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표준 발음법과 KBS 방송언어' 특강을 실시했다.

또한 성세정, 변우영 아나운서는 NHK의 언어정책과 일본어 프로그램 및 신입사원 연수를 연구하러 4월 23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황정민 아나운서, 제2회 이대 학보인상 수상



3월 18일 이대학보사 창간 60주년 기념식에서 김윤덕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대우 등과 함께 '제2회 자랑스러운 이대학보인상'을 수상했다.

황 아나운서는 1993년 공채 19기로 <VJ 특공대>, <여풍당당> 등을 진행했고 현재 2FM <황정민의 FM대행진>을 맡고 있다.



아나운서국 춘계 단합대회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서 열려



아나운서국 체육대회 겸 춘계 단합대회가 4월 11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렸다. 한마음으로 뛰며 아나운서국의 발전을 기원한 이날, 국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기 못지않게 최재혁, 강영은, 김수정, 김지은 등 4명의 아나운서 출신 국장들의 협찬금과 각계의 지원도 풍성했다고 한다.

명예 아나운서 다솜이 4기 활동 시작

아나운서가 배출되었다.

명예 아나운서 다솜이 4기가 6월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다솜이 4기 12명은 9주 동안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비롯해 상암시대 뉴 MBC에 관한 6월 <우리말 나들이> 특집 출연 등 방송 전반을 경험하게 된다. 그간 다솜이를 통해 강다솜 아나운서 등 3명의

배현진 기자 전직 후 9시뉴스 앵커로 복귀

배현진 아나운서가 사내 기자 모집 공고를 통해 4월 24일부터 국제부 기자로 전직, 6개월만인 5월 12일부터 기자 신분으로 <뉴스데스크> 앵커로 복귀했다.



<김정일의 생생가요> 10년 진행한 김정일 부장 '더 보이스 오브 SBS'에 헌액 돼



김정일 아나운서 부장이 SBS LOVE FM <김정일의 생생가요>를 10년간 진행한 공로로 '더 보이스 오브 SBS(the voice of SBS)'에 헌액되었다.

김일중 아나운서 <좋은 아침> 새 MC로 발탁

4월 개편을 맞아 김일중 아나운서가 <좋은 아침>의 새 MC로 발탁되었다. 박은경 아나운서와 탤런트 조형기가 하차하고, 기존의 MC 김한 아나운서와 함께 김일중 아나운서와 탤런트 양정아가 새 진행자로 합류했다.



이윤아 아나운서 연예인 야구팀 라바 우익수로 출전



이윤아 아나운서가 6월 9일 경기도 양주시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제6회 연예인 야구대회 '라바'와 '이گی스'의 개막전에 선발 출전했다. 이 아나운서는 개그맨 변기수, 문세윤 등이 소속된 라바의 홍일점 우익수로 경기에 참가했다.



건강토크쇼 '맘스닥터' 등 활기차고 재미있게 봄철 프로그램 개편

4월 14일 봄철 개편과 함께 진행자를 교체하고 방송시간을 변경했다.

의학전문 프로그램인 <TV주치의>는 방송시간을 15분으로 확대하고 새롭게 신미정 아나운서(사진)를 투입해 활기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꾀했다. 또 신설 프로그램 <맘스닥터>의 진행은 최지혜 아나운서가 맡았다. <맘스닥터>는 중년 여성을 위한 건강토크쇼로,



전문의로 구성된 출연진이 의료정보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실제 중년 여성의 생생한 사례로 패널들의 솔직한 대화를 유도, 그 과정에서 주 시청층 중년의 엄마들이 감정적인 치유까지 될 수 있도록 돕는 토크쇼를 지향한다. 한편 <뮤직&무비>와 <연예매거진>의 진행자가 교체됐고, 아침 방송 <생방송 OBS 1, 2>는 통합패 시간이 축소되었다.



tbs 개국 24주년 맞아 무료 한방 검진 등 기념행사와 특집방송 마련

tbs가 6월 11일 개국 24주년을 맞아 tbs 아마당에서 무료 한방 검진을 실시했다.

전문 의료진 20명이 뇌혈류 검사 등 성인병 한방진료와 치과 검사를 해 큰 호응을 받았다.

최지은 아나운서(사진)가 진행하는 <네 시를 잡아라>는 이 날 상암 올림픽 공원을 찾아 '내가 바꾸고 싶은 서울, 내가 꿈꾸는 서울'이라는 주제로 라디오 현장 생방송을 진행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탈바꿈한 월드컵 공원에서 서울 시민들이 꿈꾸는 서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금잔디', '자전거 탄 풍경' 등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도 펼쳐졌다.



평화방송 · 신문 창립 26주년기념 제14회 PBC 창작생활성가제 개최

평화방송 · 평화신문 창립 26주년 기념 제14회 PBC 창작생활성가제가 재단이사장 조규만 주교와 안병철 사장님을 비롯해 7백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5월 23일 오후 7시 마포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슬에 아나운서와 이형진 생활성가 가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경연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한 12개 팀 중 대상은 '천사의 노래'를 부른, 육사 화랑대 성당 현역 군인 3명으로 구성된 '솔리디오(Solideo 사진)'가 차지했다.

지승신 아나운서 '청남대울트라마라톤대회' 100km 완주



4월 12일 오후 4시 충북 청원군 청남대에서 열린 100km 코스 제12회 청남대 울트라마라톤대회에 출전해 이튿날인 13일 오전 7시 44분에 끝인, 15시간 44분을 기록하며 완주했다.

2006년부터 마라톤을 해온 지승신 아나운서는 앞으로 222km 성지순례마라톤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빛나 아나운서 육아휴직 후 복직

2005년 7월 입사한 김빛나 아나운서가 1년간 육아휴직 후 4월 23일 복귀, 현재 라디오 <한낮의 가요선물(오후 12:10~14:00)> 주말 DJ를 맡고 있다.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제1회 산행수기 공모 시상

불교방송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세 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이웃과 자비를 나누는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맞이했다.



한 '제1회 산행수기 공모 시상식'이 5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정준영 아나운서 사회로 열렸다.

특히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주관

이 날 정법을 통해 아픔을 극복한 진솔한 불자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봄 개편 맞아 아나운서 투입 1인 제작 프로그램 크게 늘려

CBS 라디오가 5월 19일 봄 개편을 단행했

백원경 아나운서의 <올댓재즈>는 새벽 2

다. 1인 제작 프로그램 참여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7명의 DJ가 진행하는 신설 프로그램 <레인보우스트리트>에 김윤주, 이지민 아나운서가 투입되어 각각의 개성에 맞게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다. 또한 CBS음악FM의 <영화음악>은 16년지기 신지혜 아나운서를 대신해 유지수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았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지수, 백원경, 김윤주, 김덕기, 송정훈, 이지민 아나운서

시에서 밤 12시로 시간대를 옮겨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한편 그동안 <CCM 캠프>의 진행자로 인기를 끌었던 송정훈 아나운서가 매일 오전 11시 표준 FM의 <웰빙다이아리>로 이동해 새로운 방송 장르에 도전하고, 매일 아침 6시 10분에 방송하던 김덕기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은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로 이름을 변경했다.



청취자 삶 속에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봄 개편

5월 19일 봄 개편을 맞아 청취자들의 삶 속에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전국 11개 극동방송 지사를 통해 전국권으로 확대 방송되는 극동방송의 6시 퇴근길 대표 프로그램 장대진 아나운서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시작으로 현대 남성들의 고민을 기독교적으로 풀어가는 <남자들의 Why>,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들을 공유하는 보이는 라디오 <View-tiful Radio(뷰

티풀 라디오)>, '우편번호 1069 상큼우체국입니다', '우리 같이 산책할까요' 등의 코너와 음악으로 꾸며진 <상큼한 오후>, 북한을 향한 <복음의 메아리>와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등이다.



한편 얼마 전 100회를 맞아 더 열심히 방송 선교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힌 배우 심은하 씨가 진행하는 <심은하와 차 한 잔을>도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우리말 다듣기 눈초 契初 이규형(전 KBS)의 발음 이야기 4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이 도령 · 춘향의 말씨, 방자 · 향단의 말투



우리나라의 방송을 듣노라면 마치 심판과 규칙이 없는 경기를 보는 것 같다. 이번 세월호 관련 방송에서 일부 진행자의 어조語調는 애도방송과 동떨어져 있었다. 차량의 교통사고가 있듯, 방송에도 언어의 교통사고가 있다. 해방 이후 제도권 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이 없었으므로 모든 방송인들과 소수의 아나운서들조차도 방송언어의 중요성을 절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딱하고 재미가 없다고 누명을 씌우면서, 면허증 시대에 단 1시간의 교육도 받지 않은 무면허 운전사와 같은 외부인들이 대거 등장, 이때의 문호개방(?)이 원인(原因)이 되었다.

방송은 종합예술이므로 격식체(格式/Formal Style)와 비격식체(格式/Informal Style)의 언어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춘향전은 책보다는 극화(劇化)되었을 때 주연과 조연의 말씨가 빚어내는 품격의 대칭미(Symetry)로 또 다른 재미를 더해준다. 요즘의 방송 판도는 주류(主流)와 비주류(非主流)가 뒤바뀐 방자·향단의 전성시대라 하겠다.

무릇 인간에게는 2단계의 욕망이 있으니, 1단계는 남보다 비싼 옷, 맛있는 음식, 고급 주택에 살고 싶을 것이다. 2단계는 신분상승의 욕망인데, TV라는 영물은 최단기간의 출연으로도 이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기 때문에 방송계 안팎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극단의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이것이 근인(近因)이라 하겠다.

오늘날 방송언어의 참담한 실상(實相)은 언제부터 비롯된 것일까? 80년대 초 신군부정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는 우민(愚民)정책의 일환으로 컬러TV가 등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표준 발음의 아나운서 방송은 딱

우리나라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 면에서 경제의 선진국이나 실상은 상식의 후진국이다. 이제는 'P'를 인격(Personality)으로도 생각할 때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방송의 선진국이요, 방송언어의 후진국이다.

방송계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나운서가 제일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방송을 조금 아는 사람은 아나운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방송을 많이 아는 사람은 아나운서를 절대적인 존재로 보게 된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이기문(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자신이 평안도 출신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한 번도 방송에 출연한 적이 없다.

회원 동정

유리디체아카데미 회장으로 창립 5주년 기념식 개최 정흥숙(전 MBC)



▶왼쪽부터 박정소, 이윤덕 고문, 한인옥 여사, 정흥숙 회장, 선병렬 교수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실아트홀에서 열리는 유리디체아카데미(문의 02-409-0882, http://cafe.naver.com/euridiceacademy)의 회장으로 서 6월 3일 247회 음악감상회 겸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흥숙 회장은 1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지도교수인 선병렬 음악평론가의 수준 높은 해설로 영상 콘서트를 함께 즐기다보면 엔돌핀의 4000배인 다이돌핀이 분비되어 나날이 젊어질 것이다.”라고 축원했다. 이 날 팜페라 가수 박정소가 껌팔이 성악가로 유명한 최성봉의 멘토가 된 인연을 소개하며 축가를 선사했다.

관악 FM 출연 결혼이주여성 위해 한국의 효 문화 소개 이혜옥(전 KBS)



(사)관악라디오공동체가 운영하는 다문화인식개선방송 관악 FM(100.3MHz) <굿모닝 세상의 아줌마들>의 <노래 속에 말 속에 우리말 회화(토 오전 10~11시, 진행 이성화 회원)> 프로그램에 5월 29일 출연해 시부모 봉양 등 한국의 효 문화와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소개했다. 이 회원은 1969년 KBS에 입사해 1978년까지 CBS, TBC 등에서 방송했으며 그 후 28년간 이혜옥 부티크를 창립해 경영했다.

미국 여행 중 한인 신문에서 '뉴욕고양이' 발표 호평 받아 이후재(전 KBS)



4월 10일부터 미국 뉴욕을 여행하고 5월 초 귀국했다. 이 회원은 조선공주 이해경 여사 면담, 뉴욕 김치 맨해튼 홍보관 견학 등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세월호 참사 관련 시 '뉴욕고양이'를 5월 4일자 뉴욕 '선데이한국'에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대 국문과 졸업하고 1970년 KBS에 입사한 이 회원은 KBS원주 방송국장을 지내고 60대에 등단해 시집 <땀 흘리는 산>과 <거북바위가 묻는다>를 펴냈다.

손자를 키우며 육아일기 <똥꼬 할아버지와 장미꽃 손자> 출간 이계진(전 KBS) 부회장



<똥꼬 할아버지와 장미꽃 손자>라는 육아기를 출간했다. 할아버지를 “똥꾸 똥꾸”라 불어붙이는 손자를 “장미꽃”이라 부르며 돌보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적었다.

현재 국군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농부 이계진의 산촌일기> 등 저서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구어체, 표준발음으로 성경 녹음 1100세트 무료 배포 최창섭(전 MBC)



성경을 장단음이나 경음, 띄어 읽기 등에 주안점을 두고 문어체 문장을 구어체로 바꾸어 1년여에 걸쳐 녹음했다. MP3로 500세트를 제작해 원하는 사람들에게 등기나 택배로 무료 우송하고 독지가의 도움으로 추가로 600세트를 배포했다.

최 회원은 요즘 5년째 성경을 쉽게 고쳐 쓰는 작업을 하며, 탈북 기독교대학생들에게 영어 성경 지도와 평창동 연예인 교회에서 영어성경 암송반을 인도하고 있다.

대한민국서예문인화원로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임 맹관영(전 KBS)



5월 28일 한국미술협회, 서예가협회, 서도협회 소속 65세 이상의 초대작가 모임인 대한민국서예문인화원로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클럽회보 제호작가인 맹관영은 1967년 동아방송(TBC) 4기로 입사해 <동물의 세계>, <인간만세>, <유쾌한 응접실> 등을 진행했으며 1997년 KBS 방송위원으로 정년퇴직했다. 1997년 백악예원에서 서화 개인전을 연 문인화가로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대한민국문인화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문인화협회 고문이기도 하다.

30년 최장수 클래식 DJ 이미선 아나운서 KBS 정년퇴직

KBS 1FM(93.1MHz)에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방송되는 <당신의 밤과 음악>은 하루의 아름다운 마침표란 표제가 딱 들어맞는 프로그램이다. 시그널 빌더클래스의 바순 연주 'Hymn'에 또 하나의 선율처럼 실리는 온화한 목소리로 깊은 밤을 위무 해주던 이미선 아나운서가 3월 31일자로 정년퇴직했다.

이규향(전 KBS) 회원이 '최고의 목소리'로 꼽았던 이미선 아나운서는 1978년 동아방송(DBS)으로 입사, 방송통폐합 후 1983년 <음악의 산책>을 맡은 이래 30년간 클래식 프로그램 DJ로 사랑을 받았다.

앞으로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하고 싶어 깊은 밤을 위로해 주던 최고로 온화한 목소리

2007년 제34회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미선 아나운서는 감성적이면서 솔직한 게 라디오의 매력이라면서 근황을 묻자, “가끔 영상해설사, 시낭송가 양성 교육 강의를 하며 지낸다. 앞으로 클래식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1982년 현옥 아나운서로 시작한 <당신의 밤과 음악>은 유애리, 안희재, 한순옥 아나운서에 이어 1993년 방송시간이 확대되며 이미선 아나운서가 맡아 지역방송사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2013년까지 진행했으며 올 1월 1일부터 위서현 아나운서로 바뀌었다.

전직 MBC 여 아나운서 모임 초록회, 춘천MBC 견학 임국희(전 MBC) 부회장



▶왼쪽부터 서은선, 노영인 전 PD, 김재영, 임국희, 최은형, 이인숙, 김선희, 남궁미

전직 MBC 여 아나운서 위주 모임인 초록회 종신 회장으로 서 4월 29일 춘천 MBC 이우영 사장의 초청으로 방송사를 견학하며 7명의 회원과 우의를 다졌다.

임 부회장은 인원이 적어 아쉬웠지만 모처럼 춘천에서 함께해 즐거웠으며 앞으로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달간 프랑스 여행 후 가족 여행기 <가족이 아름답다> 출간 이종태(전 KBS)



외교부에 근무하며 현재 국비 유학생으로 파리에 체류 중인 딸 소리 양의 초청으로 전 가족 4명이 한 달간 프랑스 전역을 여행한 일기와 300여 장의 사진을 엮어 <가족이 아름답다>를 출간했다.

1970년부터 2008년까지 KBS에서 근무한 이 회원은 퇴직 후 국제교류문화원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전 우송대학교 초빙교수로 외국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민창기(전 TBC) 회원 향년 78세로 별세 아나운서 기업인 정치인으로 산 인생 격저 담은 회고록 남겨

민창기 회원이 지병으로 5월 4일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고인故人是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61년 MBC 공채 1기로 입사, 1964년 TBC로 옮겨 교양 전문 MC로 자리 잡은 후 37년간 인기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KBS 보도국 해설위원·방송위원을 지내며 <아침의 화제>, <9시뉴스>, <9시에 만납시다>, SBS가 개국하자 기업가 겸 프리랜서로서 <그대 이름은 여성>, <출발 모닝 와이드>, CBS <새롭게 하소서>, EBS <나의 학창시절> 등을 진행했다.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정계에 진출, 2002년 대선 당시 국민통합21 홍보위원장·후보단일화추진단장을 지냈으며 말년에는 홍익대에서 미술 강좌를 들으며 유화를 배우기도 했다. ‘바빴지만 즐거웠고, 이등인생이었지만 보람 있었다.’고 솔직한 고인의 축복받은 삶의 여정은 지난 3월 펴낸 회고록 겸 화집 <아나운서 민창기 열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TV조선 신설 <사랑은 춤을 타고> 공동 MC 맡아 손범수·진양혜(전 KBS)



SBS TV <심심남녀>를 진행한 지 13년 만에 <사랑은 춤을 타고>의 공동 MC를 맡았다. TV조선에서 스타 부부의 '댄스 스포츠' 도전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고자 신설한 이 프로그램은 5월 18일 밤 9시 30분 첫 방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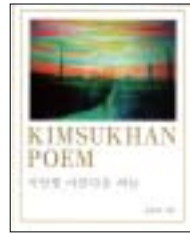
'손미나의 로맨스 인 스페인' 음악회 진행 손미나(전 KBS)



6월 28일 오후 8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손미나의 로맨스 인 스페인'이라는 제목의 음악회를 이끈다.

연주와 공연 사이사이 손 회원이 직접 찍은 사진 등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해 들려주며 스페인을 여행하듯 구성한 음악회이다. 그는 작가, 강사, 편집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친구 어머니 습작시 편집 <석양빛 아름다운 하늘> 출간 도와 황인우(전 KBS)



고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어머니의 습작 시와 그림, 사진을 엮어 김숙한 시집 <석양빛 아름다운 하늘(몽트)>의 출간을 기획했다. 82세 시인의 나이 들에 관한 관조는 물론 제2차 세계대전 도쿄대공습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전쟁의 피해자로서 서사성에 주목해 시집 출간을 돕게 되었다고 한다. 황 회원은 1979년 KBS 공채 6기로 입사해 1993년 퇴직 후 SBS방송아카데미 전임교수, 서울여대 언론영상학과 초빙교수를 지냈다.

재능교육 주최 시낭송 교육자 강의 김상준(전 KBS) 감사



재능교육 주최로 인천재능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5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12주간 진행되는 '제1기 시낭송 교육자 자격증' 과정에서 명료하게 읽기를 강의하고 있다.

국어생활연구원에서 표준발음 강의 박경희(전 KBS)



(사)국어생활연구원(원장 김희진, 02-712-9730)이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최하는 생활 국어반 강좌에서 표준어, 표준발음을 강의 중이다.

초대석

6·25 참전 유공자 배덕환 (전 KBS) 회원

나를 꾸준히 다듬으며 자신의 길을 찾으세요!

호주 이민생활 접고 7년 전에 귀국한 독실한 카톨릭 신자

6.25 유공 훈장을 받으셨다니 존경스럽습니다!

작년에 받은 6.25 참전 화랑 무공 훈장을 비롯해 유엔군 참전 중군 기장, 6.25 참전 호국 영웅 기장을 보면 전장의 모습과 대북방송을 진행했던 때가 떠올라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간절해집니다.

몇 살 때 입대를 하신 건가요?

6.25 때, 만 열일곱 살이던 1950년 12월 19일 제2국민병으로 징집되었습니다. 정부가 만 17세부터 40세까지 장정들을 격리 보호하고 군의 전력을 증강시킬 목적으로 '국민방위군'을 조직했었어요. 나는 19일간 도보로 경남 진주로 내려가 101사단 103연대에 배속되어 3개월간 훈련을 받고 후방에서 탄약을 운반하는 지원 병력을 관리하는 기간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북한군과 중공군이 경북 팔공산까지 침투한 위급한 상황이었죠.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해 북진할 때는 우리 '국민방위군'도 서부전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진주에서 마산항과 군산항, 인천항을 거쳐 경기도 의정부읍 법원리에 집결해 개성 근처까지 하루자고 이동하는 생활을 반복했지요. 그러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후 육군 병장으로 전역, 행정병으로 복무하다 1954년 8월 30일에 제대했습니다.

무려 5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신 거네요!

방송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55학번으로 성균관대 법대에 들어가 농구부도 만들며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내고 '무얼 할까?' 하다가 아나운서 한번 해보고 싶어 1961년 6월에 국가 공무원 공채 시험 우리말 아나운서 모집에 응시해 합격했지요.

아나운서 신입 시절은 어떠했나요?

1600명 가운데 나와 인주희, 임국희, 최정연, 4명이 뽑혔습니다. 엄청난 경쟁률만큼 경쟁도 치열했어요. 채널이 라디오 두 개뿐이라 신입사원이 방송에 투입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콜사인과 시보만 1년 하다가 첫 뉴스를 진행할 때 그 떨림과 설렘은 잊을 수 없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서무도 맡으셨다면요?

아나운서실은 군대생활을 방불케 하는 엄한 분위기였는데, 우수한 인재는 많았지만 꺾은일을 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문서 작성에 서툰 동료 아나운서들이 답답해 내가 자질구레한 일은 물론 군 행정 경험을 살려 총무 일을 맡다 보니 실장이던 이광재 선배가 나에게 최초로 'KBS 아나운서실 서무과장'이란 이름을 붙여주셨지요.

방송 생활도 들려주세요.

일이 많을 때는 제1라디오 오전 11시 뉴스, 오후 4시

6·25 참전용사로서 1961년 KBS에 입사, 1989년 정년퇴직 후 호주로 이민 갔다가 7년 전 귀국해 남산시절 동료들의 모임인 목멱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노후를 즐기는 배덕환 아나운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명동성당 부근 카페에서 가톨릭 신자인 대선배님을 만났다. 싱그러운 미소를 잃지 않는 선배님의 모습을 뵈자 나는 긴장이 설렘으로 바뀐 채 선배님의 자상한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 배덕환 선배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입으로 사람이 감동시키는 아나운서들도 남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김지현 아나운서

대북 심리전 방송과 정략현 대위 북한 전투기 귀순
애기봉 크리스마스 점등식 중계가 가장 큰 보람

문서 작성에 서툰 동료들이 답답해 군 행정 경험 살려
총무 일 맡으면서 '서무과장'이란 공식 명칭 얻어

신앙생활의 힘은 믿음에서 나오지요
제2국민병으로 6·25 참전, 성대 법대 졸업 후
1961년 아나운서 시험에 도전



▶ 1962년 10시사에서 복무 중인 18살 소년병 ▶ 1965년 2월 최초로 월남전에 파병되는 비둘기부대 정병들을 위해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위문방송

경제 뉴스, 밤 10시 종합뉴스, 11시 시사해설을 비롯해 낮 12시 10분부터 김주혜 아나운서와 함께 <노래의 꽃다발>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부전선 OO기지 비둘기부대가 건설지원단으로 월남전에 파병됐을 때 위문 공연 사회를 보았고, 민요 명창들이 출연하는 <민속의 잔치> 사회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공개방송 하러 많이 돌아다녔지요. 그 밖에 개천절 기념식, 각종 중요 기공식 등 기념식 중계방송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후 부산방송국을 거쳐 라디오국 PD, 국제국 PD, KBS사업단 프로그램 판매부장, 시청자상담실 방송위원을 지내다 1989년 퇴직했습니다.

어떤 게 기억에 남습니까?

<새 소식>을 비롯해 <그리운 옛 노래>, <자유의 종> 등 대공 심리전 방송을 맡았을 때, 북한의 정략현 대위가 공군 전투기를 몰고 귀순해온 사건은 큰 충격이자 큰 보람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장춘 PD와 함께한 1968년 12월 18일의 '애기봉 크리스마스 점등식' 중계입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위로의 불빛'을 보이기 위한 행사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뇌성벽력이 치는데, 입이 열어 방송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방송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던 중 눈앞에서 철모를 쓴 해병대 용사 세 명이 벼락을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주여!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옵소서.'란 기도가 절로 나오더군요.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명동성당에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만나셨나요?

마리아가 본명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며 전 요셉을 세례명으로 택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성가정을 닮자는 의미지요.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내의 인도로 시작되었지만, 견진성사나 M.E., 꾸르실료를 통해 기도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믿음 자체에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종류와 상관 없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힘이라고 느낍니다.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선배들을 따라하다가 내 특색을 찾아야지요. 선배들과 시·청취자의 모니터를 끊임없이 들으며 나 자신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듣다보면 각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 알림 |

축하합니다

김민지(전 SBS) 축구 박지성 선수와 7월 27일 혼인
이선영(KBS) 7월 8일 사업가와 혼인
엄지인(KBS) 6월 14일 사업가와 혼인
전진영(전 KBS) 5월 10일 큰딸 배연경 양 혼사

조의를 표합니다

차경애(KBS부산) 6월 2일 부친상, 이소연(전 KBS) 5월 11일 부친상
고성균(전 KBS) 5월 11일 빙부상, 최화숙(전 MBC) 5월 9일 모친상
최희선(전 KBS) 5월 9일 모친상, 강성희(전 KBS) 4월 23일 시모상
황정민(KBS) 4월 10일 부친상, 김동건(전 KBS) 4월 4일 빙모상
박상도(KBS) 3월 19일 빙부상, 양진수(전 MBC) 3월 14일 부친상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진(MBC) 5월 24일 퇴사
이지연(KBS) 4월 16일 퇴사
이재매(KBS) 4월 7일 퇴사
이마선(KBS) 3월 31일 정년퇴직

고맙습니다

6월 10일까지 입금 순



사랑의 손길 기부 내 주신분



오미영(전 KBS) 30만 원



이지연(전 CBS) 50만 원



이병혜(전 KBS) 30만 원



최화숙(전 MBC) 10만 원



그때 그 사람! 궁금하시지요?

미주방송인협회장을 지낸 정영호(전 KBS) 편집위원이 서부지역 회원들의 소식을 전해왔다.

아울러 뉴욕을 방문했던 이후재 회원이 동부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소식을 모아왔다.

미주 회원 여러분! 최근 사진과 함께 근황을 annaclub7@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회보에 잘 실어드리겠습니다.

김봉구 (전 HLKZ-TV, LA)

미주방송인협회 종신 명예회장으로서 방송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낸다. 또한 LA 교육문화원에서 서도 강사로 활동 중이다.

김영우 (전 MBC, 노스 캘리포니아)

지난 50년간 써온 방송자료와 방송기기를 미국남가주대학(USC)에 기증하고 은퇴하기로 결정한 후 2월 12일 기증식부터 이관 작업까지 바쁜 일정을 끝내고, 요즘 모처럼 조용한 휴식을 즐기고 있다.

홍우창 (전 TBC, LA)



미주한인사회에서 최초로 설립한 LA 올림픽라이온스클럽 회장을 지낸 후에도 계속해서 20여 년간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며 부동산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다.

오는 7월 결혼 8년차인 장녀 캐롤라인(영문학 박사, 뉴욕 쿨리지 대학 교수)이 딸을 출산할 예정이어서 할아버지란 영예의 반열(?)에 오르게 될 기대에 부풀어 있다.

홍 회원의 연락처는 hongcary@yahoo.com, (213) 200-7414 이다.

권윤기 (전 TBC, 오렌지카운티)

얼마 전까지 진행하던 가톨릭방송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오렌지카운티 가든그로브에서 독서와 시를 즐기며 지내는 데, 그 동안 써온 시를 모아 시집을 낼 계획도 갖고 있다.

김미영 (전 MBC, LA)

미주방송인협회 총무를 맡아 매일 출근하며 일요일엔 성당에서 미사 전례를 맡고 있다. 얼마 전 진명여고 동문들과 서울에서 은사님을 모셔다 '보수연(保壽宴)'을 열어드렸다.

미국 구글에 다니던 장남(33세)은 2년 전 한국에 나가 IT관련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둘째인 딸(31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광고회사에 다니며, 막내인 아들(22)은 작곡가로 활약하고 있다.

김정태 (전 CBS, LA)

전 CBS 아나운서실장으로서 채널18 KSCI방송을 통해 39년째 선교전도방송을 하며, 영락교회가 전 세계에 파송한 360명의 해외선교사들에게 설교 테이프를 제작·발송하고 있다. 최초의 한인선교방송은 40년 전 나성영락교회가 창립 예배를 본 다음해부터 시작되었다.

장인숙 (전 MBC, 노스 캘리포니아)

남편인 김준철 전 MBC 기자와 매년 여름휴가를 샌프란시스코 딸집에서 보내는데, 한 달 전 샌프란시스코 북서쪽 소노마 포도원과 나파밸리 포도원에서 10일간 휴가를 보냈다.

강미란 (전 KBS, 시애틀)

지난 4월 친구들과 1주일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지금은 집에서 수영과 골프를 즐기며 건강을 챙기고 있다.

이복신 (전 KBS, 조지아주)

1950년부터 1953년까지 KBS 부산방송국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거리 관계로 LA의 방송인들과 어울리는 기회는 드물지만 방송에 대한 애정과 격려는 변함이 없다. 연락처는 jlee8w@gmail.com이다.

이승상 (전 KBS-MBC, LA)

작년 연말 둘째 아들에게서 손녀를 본 후 매주 이틀씩 열반 아들 집을 방문하여 본격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다. 채널18 KSCI방송국의 오렌지카운티 지국장 업무도 계속하고 있고 일요일엔 가브리엘성당 미사에도 열심히 나가고 있다.

맹(조)경원 (전 DBS, 노스리지)



30년간 SBA 선교TV 아나운서로 방송하며 미주연세콰이어 합창단원, 미주연세오케스트라 하프 연주자로서 11월 공연을 준비 중이다. 춘하추동방송 블로그에 DBS 초년생생활부터 지금까지 활동상이 상세히 소개되었다.

이정원 (전 MBC, LA)

LA 라디오서울 편성국에 근무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 동안 청취자 폭이 매우 넓은 인기 프로그램 생방송 <좋은 아침, 좋은 하루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장미선 (전 DBS, 뉴욕)

뉴욕 이주 후 라디오코리아 아나운서로 입사, 현재 방송본부장으로 매일 오전 <여성살롱>을 인기리에 진행 중이다.

김영호 (전 KBS, 뉴욕)

1961년 12월 31일 KBS TV 개국 첫 뉴스를 맡았던 아나운서로 KBS 아나운서실장을 지내다 1966년 미국 이주 후 1983년 귀국해 토크쇼 <11시에 만나다> MC를 맡아 인기를 모았던 방송인이다. 최근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이사하고 미주기독교연합회방송(CTS) <일요초대석> 진행자, 뉴욕성가대합창단 이사장으로 노익장(84세)을 과시하고 있다.

양승현 (전 KBS-MBC, 뉴저지)

1973년 뉴욕으로 이민, 라디오코리아 등에서 30여 년간 동포사회의 애환을 전파에 띄운 산 증인으로서 퇴임 후 골프를 즐기며 지낸다.



정철용 (전 KBS, 뉴욕)

1970년대 중반 미국으로 이주, 미국인 회사에 근무하다 지난 3월 퇴직했다. 현재 스테이트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다.

최숙경 (전 KBS-글렌데일) 서동숙 (전 KBS, 노스 캘리포니아)

김미희 (전 KBS, 글렌데일) 남영화 (전 KBS, 아카데미) 각각 공채 2기, 5기, 6기, 8기로 비슷한 시기에 KBS에서 근무했다는 인연이 미국에서도 이어져 지금도 1년에 서너 번씩 만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지낸다.

아나운서클럽 바른말캠페인

구어체 문어체 구분해 쓰고 표준어 표준 발음 사용해야, 캠페인 자료 신문사 담당 기자에게 배포

한국어나운서클럽은 2013년도 역점사업으로 '아름답게 말해요'란 바른말 캠페인을 펼쳤다.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품위 있는 우리말을 구사하려면 상황에 맞게 구어체와 문어체를 구분해 쓰고 표준어와 표준 발음을 사용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과 박경희(전 KBS) 회원에 이어 제3회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제5기 방송언어 특별위원장이인 언론학 박사 김상준(전 KBS) 감사가 캠페인 책임 집필을 맡아 총 10회의 자료를 작성해 KBS 홍보실 선재희 팀장의 도움을 받아 KBS 출입 담당 신문사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ㄴ'의 발음
우리의 희망, 민주주의의 의미[우리에 희망, 민주주의에 의미]
(첫 음절 '의'는 반드시 '의'로 발음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ㄴ'와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이]로 발음함도 허용)
- 거센 소리가 표준발음인 경우
육학년[유강년] 입학[이팍] 밥 한술[바판술]
낮 한때[나탄때] 시작하다[시자카다] 꽃 한 송이[꼬탄송이]
(받침 ㄱ(ㄱ) ㄷ(ㅌ) ㅅ(ㅆ)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ㅅ ㅅ ㅌ'의 경우,
뒤 음절 ㅎ과 결합되면 [ㅋ ㅌ ㅍ ㅊ]으로 발음)
- '오늘 밤', '지난 밤'의 발음
오늘 밤[오늘뻬]/지난 밤[지난뻬]
안방[안뻬]/큰 방[큰뻬] 산새(山鳥)[산뻬]/산 새[산:새]
(유성음의 경우 체언 다음은 경음, 용언 다음은 평음으로 발음)
- 일본말 '뽕깡(癪癪, てんかん)'의 순화어 뽕깡(×) 생떼, 투정, 행패, 어저지(○)
- 줄어드는 열량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가르킨다.(×) 가리킨다 (○)
('가르치다'는 교육敎育, '가리키다'는 지적指摘)
- 두꺼운 허벅지와 두꺼운 선수층(×) 굵은 허벅지, 두터운 선수층(○)
('두껍다'는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물체의 둘레나 너비가 길거나 넓다는 '굵다', '두텁다'는 주로 추상적인 말과 어울림)
- "장차 큰 사람이 돼라."
할아버지는 나보고 늘 큰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직접적인 명령형은 '돼라', 간접적인 명령형일 때는 '되라')
- '리설주 최룡해'는 '이설주 최용해'로 (북한말을 따를 게 아니라 두음법칙 적용)
- 폭발[폭팔] 폭발(○) 선착장[선착창(×) 선착장(○)]
가스 폭발[가스 폭발(×) 가스 폭발(○)]
- 일죽[일쭈] 당고개[당꼬개] 신촌로터리[신촌노터리]
대학교입니다[대학 품니다] 열차입니다[열참니다]
12도[시비도] 13도[십삼도] 15도[시보도]

ORION Endless Imagination!

The Breakthrough of Ultra Large Commercial Display



OPM-4260

Application



42" MPDP 5x5 / TV Studio, Australia



42" MPDP 13x5 / Control Center, China



82" DID / Control Room, Korea



46" MLCD 5x5 / Stock Exchange, Korea

The Ultimate Display Evolution!

Infinitely Expandable **ORION OPM-4260 & OLM-5550**

You can see more than what you're seeing...

ORION leads the commercial Display market with its authentic know-how.

■ OPM-4260

- 42" Multi PDP
- 73mm depth
- 1.9mm panel gap
- Anti Burn-in System(ABS)
- Built-in Image Processor
- Infinite Expandability
- Anti-Glare Anti-Reflection

■ OLM-5550

- 55" Multi LCD
- 5.5mm panel gap
- LED Back Light
- Loop Through
- Automatic Brightness Control Sensor
- Remote Control

For more information

TEL: +82 2 6678 8505 FAX: +82 2 6678 8599 Visit us at www.oriondisplay.net

ORION
ORION CO., LTD.